

KIA 윌리엄스 감독 “성적 6위→9위 뒷걸음질 아쉽다”

필승조와 젊은 야수 성장세 성과...투·타 MVP는 장현식·최원준
한결같은 응원 팬들에 감사, 더 좋은 모습으로 뵈 수 있길 바란다



아쉬움 속에 KIA 타이거즈의 2021시즌이 마무리됐다.

KIA는 지난 3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를 끝으로

144경기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최종전에서 1-6으로 지면서 KIA의 2021시즌은 58승 10무 76패, 승률 0.433로 기록됐다.

KBO리그 두 번째 시즌을 9위로 마친 윌리엄스 감독은 “여러 감정이 섞여 있다. 실망도 있다. 어떤 부분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며 “내 역할은 최대한 많은 승리를 하는 것이다. 그런 시즌을 보내지 못해 아쉽다”고 실패를 인정했다.

7월 6경기 전승 상승세 국면에서 ‘코로나 중단’ 약재를 맞았고, 브룩스 퇴출이라는 돌발 변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지난해 중심 타선을 책임졌던 타커-나지완-최형우의 동반 부상과 부진이 발목을 잡았고, 팀훈원 최하위(66개)를 벗어나지 못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2년을 비교하면 1년 차이는 포스트 시즌을 맞볼 수 있는 위치까지 갔다가 올해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언급했다.

아쉬움 속에서도 필승조와 신예 타자들의 활약은 내년 시즌을 위한 밑거름이 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불펜에서 필승조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젊은 선발 투수들도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공격적으로는 황대인과 박찬호가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다. 최원준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군입대로)내년에 함께 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언급했다.

KBO리그의 ‘2연전’은 여전히 낯설다.

윌리엄스 감독은 “2연전 일정이 쉽지 않다.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팀들이 있다. 피로 누적은 느껴진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어제 경기에서도 실책 등 좋지 않은 플레이가 있었는데 그게 원인이지 계속 피로가 누적되면 내리막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올 시즌 투·타의 MVP로는 장현식과 최원준을 꼽았다.

윌리엄스 감독은 “정해영도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기록도 만들었지만, 장현식을 MVP로 꼽고 싶

다. 멀티이닝도 소화하고, 부담과 책임감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을 잘 소화해냈다. 많은 웨이트를 통해서 준비를 잘 해줬다”며 34홀드 타이거즈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홀드왕’에 등극한 장현식의 활약을 조명했다.

또 가장 많은 시간 그라운드를 누빈 최원준의 활약도 언급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매일 경기를 뛰기 원하는 선수들이 있다. 최원준은 KBO 역대 수비 최다이닝으로 팀에 공헌하고 뛰었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줬다. 최원준을 야수 MVP로 꼽고 싶다”고 밝혔다.

최원준은 이날 4회까지 우익수 자리를 지키며 124이닝이라는 KBO 단일 시즌 최다 수비 이닝 기록을 새로 작성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KIA는 4일 퓨처스 선수단과 신인 선수들의 훈련을 시작으로 새출발을 다짐한다. 11일부터는 1군 선수단도 캠프에 돌입, 올 시즌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해 직접 마무리캡트를 이끌었던 윌리엄스 감독은 두 명의 자녀가 이번 겨울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귀국길에 오른다. 1군 캠프는 김중국 수석코치가 지휘한다.

‘기본’과 ‘타격’에 맞춰 두 곳의 캠프가 운영된다.

윌리엄스 감독은 “합평 캠프는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다”며 “대부분의 선수는 합평에서 훈련을 하게 된다. 1군 멤버 중에서도 2군에서 시작하는 인원이 있다”며 “11일부터는 타격 캠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체력 훈련은 지난해와 비슷한 느낌으로 가려고 한다. 이번에는 타격 기술 훈련이 병행되기 때문에 지난해만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하체 쪽 부상이 많아서 그 부분에 신경 썼고, 올해 도움을 받았다. 비슷한 수준으로 훈련을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종전이 열린 30일 챔피언스필드에는 올 시즌 가장 많은 3378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모두에게(코로나19 등으로) 쉽지 않은 한 해였을 것이다”며 “아쉬움 부분이 많다. 좋은 경기로 팬들과 함께 하는 날들이 되면 좋겠다. 늘 열정적으로 KIA를 응원해주시는 것 잘 알고 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키움과의 2021시즌 최종전이 열린 지난 30일 KIA 2022년 신인들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팬들에게 자기 소개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아기 호랑이들 “신인왕 도전하겠다”

KIA 2022년 신인 선수 11명 챔피언스필드 찾아 팬에 첫선

시즌이 끝나던 날 신인 선수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 2022년 신인 선수 11명이 지난 30일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팬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대강당에서 입단식을 가진 이들은 이후 챔피언스필드로 이동해 윌리엄스 감독 및 코칭스태프와 상례례를 했다.

이어 그라운드에서 올라 팬들에게 자기 소개를 하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우선 지명받은 동성고 내야수 김도영과 함께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은 강릉고 투수 최지민, 광주일고 내야수 윤도현, 배명고 투수 강병우, 전주고 투수 김찬민, 경기고 포수 이성주, 연세대 외야수 백도렬, 인성고 투수 황동하, 전주고 외야수 한승연, 광주진흥고 포수 신명수, 송원대 투수 손진규 등 11명이 참가했다.

“광주의 핵잡수함이 되겠다”, ‘그라운드에서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선수가 되겠다’, ‘12번째 우승 시즌을 함께 하고 싶다’ 등 당찬 포부를 이야기한 이들은 부모와 시구·시포행사도 가졌다.

뜨거운 관심 속에 1차 지명 선수로 고향팀에 입단한 김도영은 “긴장도 많이 됐고, 경기장에 오니 그라운드에서 뛰고 싶은 마음도 커졌다. 영광스럽다”며 “(볼보이로 경기장을 찾았을 때와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 정식 선수가 돼서 뛰는 것이니까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또 “1군에서 뛰려면 수비가 받쳐줘야 하니까 수비 많이 배우고 싶고, 그라운드 적응도 빨리 해야겠다. 박찬호 선배님께 송구를 배워야겠다. 최원준 선배의 타격도 배워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신인왕’에 대한 욕심도 이야기했다.

김도영은 “개막전 1번 타자로 나가고 싶다”며 “(정)해영, (이)의리 형들보다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신인왕이 목표다. 문동주(한화)가 라이벌이다. 프로에서도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잘되고 싶다. 개막전부터 1군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릉에서 먼 길을 달려온 최지민의 마음도

이미 2022년에 가 있다.

최지민은 “챔피언스 필드에 처음 와봤는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구장도 좋아서 하루 빨리 1군 무대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감독님께서 잘해서 여기에 왔지만 더 열심히 해서 1군 무대에서 뛰고 싶다고 하겠다. 1군에 오르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올 시즌 KBO 미래로 떠오른 팀 선배 이의리, 모교 선배 김진욱(롯데)에 이은 좌완 기대주로 활약하고 싶은 바람도 드러냈다.

최지민은 “(이의리에게) 프로에 오자마자 어떻게 변화구를 마스터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김진욱은) 같은 팀에서 존경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이제 라이벌이 됐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잘 던지고 싶다”고 밝혔다.

역시 개막전과 신인왕을 목표로 데뷔 시즌을 준비하겠다는 각오도 언급했다.

그는 “몸 잘 만들고 준비해서 내년 시즌 개막전부터 엔트리에 들어가면 좋겠다. 신인왕이 목표다”며 “정해영 선배님 최연소 타이틀도 있는데 좋은 행동을 보여주는 기록을 작성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31일 영광 대마산단 야구장에서 열린 무등기사회인야구대회 무등리그 준결승전에서 한수위교육원 프레스의 1루 주자 전혁(오른쪽)이 2회 1사에서 도루를 시도해 세이프 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일리그 - 그린라인 vs 시원병원 무등리그 - 에어패스파죽지세 vs 자연환경

제1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결승 대진표 확정

만루홈런 등 화끈한 공격 야구 7일 최강 가리는 마지막 무대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의 결승 대진이 확정됐다. 광주일보와 전남문화가 주최하는 제1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4강전이 지난 31일 영광대마산단야구장에서 진행됐다.

광일리그에서는 그린라인과 시원병원이 결승행을 확정했다. 무등리그 결승전은 에어패스파죽지세와 자연환경(유)의 대결로 펼쳐진다.

그린라인이 조영오의 만루포 등을 앞세워 24-0, 4회 콜드승을 장식했다.

선발 양지승이 2.2이닝을 노히트노런으로 막으면서 6개의 탈삼진도 뽑아냈다. 선발이 잘 버텨주자 타선도 뜨거운 타격으로 응답했다.

1회 3점을 뽑은 그린라인이 2회에는 6점을 보냈다. 4회에는 조영오의 만루포 홈런까지 쏟아지는 등 4이닝 동안 24점을 만들면서 일찍 결승행을 확정했다.

그린라인의 기세에 눌린 소호시스템은 2안타의 빈타에 그쳤다. 시원병원도 4회 콜드승으로 결승 티켓을 따냈다.

1회 3점을 만든 시원병원은 2회 민재용의 그라운

드 홈런 등을 묶어 대거 6점을 보냈다. 3회에도 2득점에 성공하면서 11-0, 4회 콜드승을 만들었다.

투타자 박동수가 3안타 3도루로 공격을 이끌었다. 국토한방병원은 3차례 주루사가 기록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에어패스파죽지세는 한수위교육원프레스와 화끈한 타격전 끝에 12-10, 6회 시간제한승을 거뒀다. 2회까지는 썬프렌즈가 6-2로 경기를 리드했다. 하지만 파죽지세가 3회에 이어 4회 노재상의 투런포로 각각 2점을 보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썬프렌즈도 4회 다시 1점의 리드를 만들었지만 6회 승부가 갈렸다.

파죽지세가 한번에 6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썬프렌즈가 6회 3점을 추격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자연환경은 금호허리케인을 상대로 13-3, 4회 콜드승을 장식하면서 결승행을 확정했다.

자연환경이 1회초 2실점을 했지만 1회말 공격에서 바로 4-2로 승부를 뒤집었다. 4-3로 쏘긴 3회 3점을 보낸 자연환경은 4회 6득점의 빅이닝을 만들면서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중간 투수로 나온 김만철이 3이닝 4탈삼진 1실점의 활약으로 승리를 지켰고, 5번 타자 최용희가 멀티히트와 함께 세 타석에서 모두 득점에 성공하며 공격을 이끌었다.

광주·전남 사회인야구팀의 최강자를 가리는 마지막 무대는 7일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무등기 준결승 전적

◇광일리그
◆1경기(4회 콜드) 그린라인 3 6 5 10 - 24 소호시스템 0 0 0 0 - 0
▲승리투수: 양지승 ▲홈런: 조영오(4회 4점·그린라인)

◆2경기(4회 콜드) 시원병원 3 6 2 0 - 11 국토한방병원 0 0 0 0 - 0
▲승리투수: 임진우 ▲홈런: 민재용(2회 2점·그라운드 홈런·시원병원)

◇무등리그
◆1경기(시간제한) 에어패스파죽지세 1 1 2 2 0 6 - 12 한수위교육원프레스 3 3 0 1 0 3 - 10
▲승리투수: 이세진 ▲홈런: 노재상(4회 2점·파죽지세)

◆2경기(4회 콜드) 금호허리케인 2 1 0 0 - 3 자연환경 4 0 3 6 - 13
▲승리투수: 김만철

오전 10시 그린라인과 시원병원이 광일리그 우승컵을 놓고 대결한다. 오후 1시에는 에어패스파죽지세와 자연환경이 무등리그 정상을 위한 마지막 승부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